

리더인물

[문화인물 인터뷰] 다비데 스칼마니 신임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문화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한국과 이탈리아, 이제 ‘교류’를 넘어 ‘공동 창작’으로”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강국”

“문화외교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신뢰를 만드는 일”

영화·음악·현대미술·디지털 기술·지속가능성 등 한·이탈리아 협력 확대

“AI 시대일수록 예술과 인문학은 인간의 존재와 관계를 묻는 중요한 영역”

4월 부임 …“문화원이 양국 문화기관 잇는 믿을 만한 가교 되겠다”

박흥식

승인 2026.08.24 10:32 | 최종 수정 2026.08.25 17:31



다비데 스칼마니 원장. [사진=주한이탈리아문화원]

[문화인물 인터뷰] 다비데 스칼마니 신임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서면인터뷰 대담정리 박흥식 편집인

“문화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힘…한국과 이탈리아, 이제 ‘교류’를 넘어 ‘공동 창작’으로”

문화는 한 나라를 알리는 ‘상품’일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일까.

다비데 스칼마니(Davide Scalmani) 신임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은 후자에 무게를 둔다.

그에게 문화외교는 화려한 행사를 열고 자국 문화를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 마침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는 “문화는 먼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라고 말한다. 문화가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와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튼튼한 관계가 결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그의 문화철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지난 4월 부임한 스칼마니 신임 원장은 현재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다. 『The Korea Journal』은 지난 8월 중순 그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교류, K-Culture, 문화외교,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인문학, 젊은 예술가들의 미래 등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역사와 출판, 번역, 편집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20년 넘게 해외에서 일하며 밀라노와 로마를 비롯해 보스턴, 멕시코시티, 빌뉴스, 마드리드, 베오그라드, 카이로, 서울 등 여러 도시에서 생활했다.

특히 서울은 그에게 낯선 도시가 아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 이번 부임은 ‘새로운 출발’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귀환’의 의미를 갖는다.

그가 바라보는 오늘의 한국은 과거 그가 경험했던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문화적 존재감을 가진 나라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와 음악, 드라마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고 수준 높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문화는 이제 다른 나라의 기준에 맞춰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빠른 변화와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역사와 전통,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국의 모습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행사는 끝나지만 관계는 남아야 한다”

스칼마니 원장이 문화원장으로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의외로 ‘행사’가 아니라 ‘관계’다.

그는 한 번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사실보다 그 만남을 계기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문화외교는 너무 앞에 나서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한국에서 만들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의 기반’이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대학과 박물관, 극장, 연구기관, 재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가 서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정적인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한류, 이제 소개하는 문화에서 함께 만드는 문화로”

그는 이탈리아에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 영화와 음악, 드라마의 독특한 스타일뿐 아니라 높은 완성도와 스토리텔링 능력이 이탈리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이탈리아 문화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단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실제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협력이 중요합니다.”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공동 제작, 디지털 기술과 시각예술의 융합 프로젝트, 음악가와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새로운 영화 공동제작 협정이 추진되면 양국 영화 산업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음악과 현대미술, 지속가능성, 디지털 기술, 문화·창조산업 등에서 두 나라가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에는 오랜 제조업 전통과 인문주의적 사고가 있고, 한국에는 뛰어난 기획력과 기술력, 실행력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창의성?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육”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디자인과 건축, 오페라, 패션 등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창의성을 보여온 이탈리아.

그 원천을 묻자 스칼마니 원장은 “우리 주변에 늘 있다”고 답했다.

“이탈리아의 문화는 학교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입니다.”

오래된 건물과 광장, 조각과 성당, 거리와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생활하면서 아름다움과

역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만으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창의성은 탄탄한 기본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며 “새로운 것은 과거를 완전히 버릴 때가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면서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AI가 계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경험과 존재”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과 인문학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까.

그의 답은 명확했다.

AI는 엄청난 속도로 계산하고 수많은 정보를 조합할 수 있지만 인간이 몸으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삶, 개인의 기억과 역사까지 동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술과 인문학은 인간만의 경험과 존재에 관한 질문을 다룹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지식이란 무엇인지,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질문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일수록 문화와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문화와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극과 콘서트, 오페라 같은 공연예술에는 AI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술가와 관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하며 만들어내는 단 한 번의 경험, 무대 위 예술가의 존재감과 인간적인 약함, 그 순간에만 가능한 해석은 기술로 완벽하게 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명세보다 좋은 스승을 찾아라”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하는 조언은 짧지만 인상적이었다.

“제가 젊은 예술가라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많이 놀라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나 즉각적인 관심, 유명세를 너무 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스승을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자유로운 표현 사이의 균형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자신만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예술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했다.

젊은 세대의 국제교류 역시 짧게 방문해 사진을 남기고 돌아오는 방식보다는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고 연구하며 실제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와 공동 창작,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그가 생각하는 미래형 문화교류다.

발효음식과 슬로푸드, 한국과 이탈리아의 흥미로운 만남

한국과 이탈리아의 음식문화에서도 그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특히 한국의 사찰 김치와 발효음식에 관심이 많다.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드는 방식이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정신과 비슷합니다. 이런 음식에서는 시간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음식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그는 한국의 발효문화와 이탈리아의 농업·슬로푸드 문화를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관광에서도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방식보다는 작은 도시와 지역,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천천히 경험하는 ‘슬로트래블’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지역문화에도 기대가 크다.

부산과 경주, 전주 등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며 소박하면서도 재미있는 바람 하나를 덧붙였다.

“특히 전주의 진짜 비빔밥을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와 예술, 기후위기에 삶의 방식을 다시 묻다”

스칼마니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도 강조했다.

예술과 문화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돕고, 지역과 자연, 풍경,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션 리터러시(Ocean Literacy)’ 활동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예술가와 과학자를 연결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바다를 보호하는 일에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제3의 낙원(Terzo Paradiso)’ 프로젝트와도 협력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과거의 이탈리아뿐 아니라 오늘 살아 움직이는 이탈리아를 봐달라”

그는 한국인들이 이탈리아를 르네상스와 로마의 문화유산, 아름다운 관광지와 음식의 나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과거와 역사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이탈리아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작은 도시와 마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과 그곳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를 천천히 경험해 보라는 권유다.

가능하다면 이탈리아어도 배워보라고 했다.

그에게 이탈리아어는 단순한 여행과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지중해와 유럽의 인문주의 문명을 이해하는 ‘하나의 문’이다.

“문화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길”

그가 임기 동안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거창한 기념비적 사업이 아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을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으며,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기관과 지식인들이 새로운 일을 함께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믿을 만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행사는 끝나지만 관계는 남는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다비데 스칼마니 신임 원장이 생각하는 문화외교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다.

그는 한국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탈리아를 바라볼 때 과거의 위대한 역사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모습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에 찾아와 저희가 준

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문화를 함께 나누면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K-Culture의 나라가 됐고, 이탈리아는 수천 년의 문화유산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온 문화강국이다.

두 나라의 다음 단계는 어쩌면 서로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4월 부임한 다비데 스칼마니 원장.

그가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놓을 새로운 문화의 다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창작과 관계를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지난 4월 부임한 다비데 스칼마니 원장.[사진=주한이탈리아문화원]